

세계한인비즈니스 개최 준비 '순항중'

전북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주재 대회 전반 분야별 점검회의... "중요한 손님맞이, 빈틈없이 점검"

전북자치도는 9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분야별 실무책임자 참석한 가운데 4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전반의 추진 상황에 대해 점검했다.

김관영 지사는 공공외교 출장에서 귀국하자마자 첫 일정으로 대회를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전시관 구축을 비롯해 안전관리, 숙박, 위생, 교통과 수송, 관광 프로그램 등 대회 개최를 위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논의하고, 미비점을 즉시 보완해 나가는 식으로 진행했다.

먼저, 전북대학교 대운동장에 설치되는 기업전시관은 9월 2일부터 자재를 운반하는 등 본격적인 구축 과정에 돌입했다.

9월 30일까지 준비된 일정에 따라 구조물 설치에 이뤄지며, 10월 1일부터는 전기, 통신, 공조 설비 등 본격적인 내부 시설 공사를 진행, 일정에 따라 기업 전시 부스가 갖춰질 예정이다.

또한, 지니포럼, 일지리 페스티벌, 창업 대전, 투자유치설명회 등 다양한 자체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게 된다.

대회를 풍성하게 만들고,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문화공연 프로그램도 추진된다.

개폐회식을 비롯해 각종 민간 행사, 행사장과 한옥마을 일원 등에서 다채로운 문화공연이 펼쳐진다.

개폐회식과 각종 민간 행사에는 전북을 대표하는 전통과 현대 공연 프로그램들이 기획됐으며, 특히 개폐회식이 끝난 후 만찬장까지 이동하는 동선에 노상 놀이와 통합퍼레이드를 구성해 동선 자체를 하나의 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했다.

대회가 개최되는 기간 동안 전북대



네덜란드·독일 공공외교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9일 도청 회의실에서 제22차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학교 분수대와 한옥마을 일원에서는 정기적으로 버스킹 공연이 개최되며, 마당 창극, 무용공연과 모던국악, 미디어파사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추진된다.

대회 참가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투어프로그램도 추진된다.

새만금 투어는 새만금 산단의 입주 기업을 견학하고, 대회 기간 진행되는 새만금 활기업 축제와 현장 시찰을 통해 새만금의 미래 비전을 직접 체험하게 되며, 고군산군도와 환경생태단지 방문을 통해 새만금의 매력도 느껴 보게 된다.

당일 및 1박2일 선택형 전북 관광 프

로그램,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은 도내 대표 관광지인 익산과 익산시내를 중심으로 구성해 참가자들에게 전북의 다양한 매력을 소개하고 만족도를 높여 나갈 것이라는 방침이다.

원활한 대회 추진을 위해 도 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자원봉사자를 모집했으며, 연인원 400명이 10개 분야에 투입돼 참가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대회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게 된다.

특히, 자원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소양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전통의상을 기반으로 한 단체복을 착용해 대회 참가자들에게 전북의 이미지를 높일 예정이다.

대회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대책도 수립되며, 안전 분야 전문을 통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재난 대응팀 구성을 통한 현장 상황 유지 등을 추진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대회 기간이 다가오는 만큼, 각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고 성과를 거두는 대회 개최를 위해 빈틈없이 반복해서 점검해 나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오후 지난 7월 제2대 재외동포청장으로 임명된 이상덕 신임 재외동포청장이 대회장 등을 점검하기 위해 전북을 방문했다. /이만호 기자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린 가운데,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을 포함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비만 예방·관리 법적 체계 논의

민주 박희승 의원, '비만기본법' 제정 토론회 공동개최

비만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공론의 장이 국회에서 마련됐다.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과 대한비만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최근 성인은 물론 아동·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성별·연령별, 소득수준, 지역별 비만 유병률의 격차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적인 비만 예방·관리를 위한 법적 체계를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대한비만학회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성인 남성 비만 유병률은 49.2%로 2명 중 1명이 비만이다.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은, 남자는 2012년 10.4%에서 2021년 25.9%로 약 2.5배, 여자는 2012년 8.8%에서 2021년 12.3%로 약 1.4배 증가했다.

특히 비만은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

환은 물론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질환 등의 유병률을 증가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치료해야 하는 질병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에 따르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휴연(11조4,206억원), 음주(14조6,274억원)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

대한비만학회 박철영 이사장을 좌장으로, 대한비만학회 남가은 이사가 '비만 기본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박정환 이사, 홍용희 이사가 '비만 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사회적, 의료적 측면에서 설명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정혜은 과장, 국회 입법조사처 입사무엘 서기관,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 전문기자가 패널로 참석해 고견을 모았다.

박희승 의원은 이번 토론회 논의를 바탕으로 '비만 기본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만호기자·남원=김기두기자

'마음의 병' 앓는 소방관 급증 정작 상담사 인력은 '태부족'

민주 한병도 의원 "소방관 1인당 714명 소하"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을 겪는 소방관이 늘어나며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 상담사 인력도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소방관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제주도 1,297명)과 가장 적은 지역(인천 394명)의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찾아가는 상담실'을 이용한 소방공무원의 2020년 4만 8,026명에서 2021년 5만 3,374명, 2022년 6만 2,913명, 2023년 6만 9,953명으로 3년 새 2만 1,927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이미 4만 1,123명이 상담실을 찾아 지난해 규모를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소방청은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3년 98명으로 증원했지만, 상담실을 찾는 소방관이 더 가파르게 늘면서 상담사 1명당 평균 상담 인원은 2020년 667명에서 2023년 714명으로 늘었다. 시도별 편차도 심했다. 지난해 기준 제주 소방관 1명이 평균 1,297명을 만났고, 이어서 △세종 1,263명 △대전 1,121명 △광주 1,037명 △충남 938명 △부산 892명 순이었으며, 상담사 1인당 연평균 상담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제주도 1,297명)과 가장 적은 지역(인천 394명)의 차이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이 곧 시민의 안전이다"라고 강조하며, "소방청은 늘어나는 상담 수요에 대응하여 충분한 상담 인력 배치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만호기자·익산=이재훈기자

도내 중장년 농업인 지원 근거 마련

이정린 도의원, 조례안 발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정린 의원(남원1·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농업인 지원 조례안'이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도내 중장년농업인 인구는 5만4,611명으로 도내 농가인구(17만 9,162명)의 30.5%를 차지하며 농촌경제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전북자치도는 청년농업인(만18세 이상~45세 미만)과 고령농업인(65세 이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해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으나, 도내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중장년농업인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라며 취지를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중장년 농업인의 전문성 강화와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 마련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고, △중장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기술역량 향상 등 중장년 농업인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영농 형태, 영농경력 등 실태조사 실시 △시군 및 지역 유관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만호 기자

"완주전주 통합 반대 측 서명부 전수조사"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완주전주역사복원추진위, 서명부 불법 의혹 제기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이사장 이동진)와 완주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공동대표 나유인, 마완식)가 지난 7월경 통합 반대 측에서 완주군에 제출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서명부의 불법 의혹을 제기했다.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와 완주역사복원추진위원회 소속 이동진 이사장, 마완식 공동대표와 회원 6명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현철 봉동이장협의회 회장, 최등원 민주평통 완주군지회 회장 등 50명에 대해 이날 완주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준 공무원인 이장들이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9조에는 '이장은 공무원 이외에 집단적 행동을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를 위반해서 집단적으로 군민들의 반대 서명에 나섰고, 서명부의 일부는 대필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이들을 형법 제231조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및 같은 법 제234조 위조 사문서 등의 행사죄, 같은 법 제356조 업무상 배임죄, 완주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위반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완주전주상생통합협회 이동진 이사장이 9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 접수증을 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완주군 비영리 민간단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해 완주군수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취지에 맞지 않는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이는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 내지는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거나 관계기관에서 이 부분도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완주전주 통합 반대단체들은 지난 7월 완주군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는 통합 행위를 중단하

며, 통합에 반대하는 군민 3만2,785명의 서명부를 완주군에 제출하고, 이를 전달받은 완주군수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날 기자회견과 관련, 한 도민은 "찬성 측이나 반대 측이나 법으로 해결하려면 서로 간의 갈등이 심화될텐데 걱정된다"며, "지혜롭고 슬기롭게 서로 상생의 길을 찾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

도의회 예결특위, 내년도 예산 심사 대비 기법 연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9일, 2025년도 예산안 등 심사를 대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 재정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예산심사 기법에 대한 연수를 실시했다.

먼저, 재정사업 현장으로 스마트스쿨 운영과 관련된 고창교육지원청 내에 설치된 에듀테크 Talk Talk 교육실을 방문하여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했으며, 2026년도 말에 준공 예정인 고창 교직원 연립사립

부지(신림초등학교 부지 내)를 방문하여 교직원들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후 예산심사 역량강화를 위해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을 초빙해 전북 재정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연수를 통해 내년 본예산 심사 방향 등을 논의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시의회, 추석 앞두고 군부대 등에 위문품 전달

남원시의회(의장 김영태)는 추석을 앞두고 9일부터 관내 사회복지시설과 군부대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9일에는 김영태 의장이 시설 관계자 및 군 장병들과 담소하면 안부를 물었으며, 시설 종사자들은 "무더위가 계속될수록 차에 이렇게 찾아와 훈훈한 정을 나눠주시니 명절 기분이 난다. 모쪼록 어려운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군부대 관계자는 "이번 추석에도 잊지 않고 부대를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힘을 내어 지역수호에 더욱더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선관위, 여성 정치참여 연수

전북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전북선관위)는 여성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9일 한국여성유권자전북연맹 익산지부 회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정치참여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서는 '여성의 정치참여, 세상을 바꾸는 힘'을 주제로 △여성 정치 참여의 중요성 △여성 정치 참여의 역사 및 정치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전북선관위 김진수 상임위원의 특강이 진행됐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